

## 차범근(Cha, Bum Kun) 프로필

(작성자 : KeiSt ([www.keistreet.com](http://www.keistreet.com)))

| BUM-KUN „TSCHA-BUM“ CHA |                                                                        |
|-------------------------|------------------------------------------------------------------------|
| KOR - *                 | 22.05.1953                                                             |
| Größe:                  | 179 cm                                                                 |
| Gewicht:                | 78 kg                                                                  |
| Erfolge als Spieler:    |                                                                        |
| UEFA-Cup:               | 2× Sieger 1980 mit Eintracht Frankfurt sowie 1988 mit Bayer Leverkusen |
| Deutscher Pokalsieger:  | 1× Deutscher Pokalsieger 1981 mit Eintracht Frankfurt                  |
| Bundesliga:             | 1× Platz 5 1981 mit Eintracht Frankfurt                                |
|                         | 2× Platz 6 1986 und 1987 mit Bayer Leverkusen                          |

● 차범근 (1953년 5월 22일 생) / 키 : 179cm / 몸무게 : 78kg

● 선수로서의 업적

UEFA컵 2회 우승 : 1980년 Eintracht Frankfurt, 1988 mit Bayer Leverkusen

독일컵 1회 우승 : 1981 Eintracht Frankfurt

분데스리가 순위: (5위) 1981 Eintracht Frankfurt, (6위) 1986, 1987 Bayer Leverkusen

| DIE KARRIERE                   |           |                     |            |        |      |      |     |     |  |
|--------------------------------|-----------|---------------------|------------|--------|------|------|-----|-----|--|
| STATIONEN ALS NATIONALSPIELER: |           |                     |            |        |      |      |     |     |  |
| Jahr                           | Nation    | Position            | Spiele     | Tore   | Gelb | G/R  | Rot |     |  |
| 1986                           | Südkorea  | Angriff             | 3          | 0      | 0    | 0    | 0   |     |  |
| STATIONEN ALS VEREINSSPIELER:  |           |                     |            |        |      |      |     |     |  |
| Liga                           | Saison    | Verein              | Position   | Spiele | Tore | Gelb | G/R | Rot |  |
| Bundesliga                     | 1978/1979 | SV Darmstadt 98     | Angriff    | 1      | 0    | 0    | 0   | 0   |  |
| Bundesliga                     | 1979/1980 | Eintracht Frankfurt | Angriff    | 31     | 12   | 0    | 0   | 0   |  |
| Bundesliga                     | 1980/1981 | Eintracht Frankfurt | Angriff    | 27     | 8    | 0    | 0   | 0   |  |
| Bundesliga                     | 1981/1982 | Eintracht Frankfurt | Angriff    | 31     | 11   | 0    | 0   | 0   |  |
| Bundesliga                     | 1982/1983 | Eintracht Frankfurt | Angriff    | 33     | 15   | 0    | 0   | 0   |  |
| Bundesliga                     | 1983/1984 | Bayer Leverkusen    | Angriff    | 34     | 12   | 0    | 0   | 0   |  |
| Bundesliga                     | 1984/1985 | Bayer Leverkusen    | Angriff    | 29     | 10   | 0    | 0   | 0   |  |
| Bundesliga                     | 1985/1986 | Bayer Leverkusen    | Angriff    | 34     | 17   | 0    | 0   | 0   |  |
| Bundesliga                     | 1986/1987 | Bayer Leverkusen    | Angriff    | 33     | 6    | 0    | 0   | 0   |  |
| Bundesliga                     | 1987/1988 | Bayer Leverkusen    | Angriff    | 25     | 4    | 0    | 0   | 0   |  |
| Bundesliga                     | 1988/1989 | Bayer Leverkusen    | Mittelfeld | 30     | 3    | 1    | 0   | 0   |  |
| Summe:                         |           |                     |            | 308    | 98   | 1    | 0   | 0   |  |

다음은 인터넷에 떠도는 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하나 레퍼런스를 찾아보았다.

## [인터넷 글 1]

차범근에 관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1. 독일에서 활약하는 동안 기록한 98골중에 페널티골은 단 한골도 없었다.

☞ 분데스리가에서 기록한 98골 중 페널티 골은 단 한 골도 없다.[3] 레퍼런스 사이트에서 득점기록을 클릭하면 어느 경기에서 골을 넣었는지 나오는데, 페널티킥으로 득점한 경우 'Foulelfmeter'[15]라고 표시가 되지만 차범근의 기록에는 단 한 번도 'Foulelfmeter'표시가 없다. 즉, 이 이야기는 사실이다.

2. 독일에서 활약하는 동안 경고(옐로우)카드를 딱 한 장만 받았다.

☞ 두 장 받았다고 한다.[1]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 결과[3] 79-80시즌 때 독일 컵 대회에서 1장을 받았고, 분데스리가에서 88-89시즌 때 1장을 받았다. 즉, 분데스리가만 따지면 1장이 맞다. 하지만,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장수가 중요한가? 수많은 경기 속에서 그는 비신사적 플레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분데스리가 경기 308경기 중 1장) 즉 사실이다.

3. 겔스도프(Jürgen Gelsdorf)[4]에게 의도적인 태클을 당해 척추가 부러져 선수 생명의 위기에 몰렸으나 병상에 오래 누워 있다가 나온 후에도 그 선수를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전 독일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 사실이다.[1], [2] 또한 차범근은 부상을 당한 다음 해 겔스도프와 레버쿠젠에서 함께 뛰게 된다.



4. 차범이 활약했던 당시 독일축구계가 그를 귀화시키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그는 자신의 조국을 버릴 수 없다고 단호히 사양했다.

☞ 자료로 확인 불가능

5. 차범이 병상에서 일어났으나 후유증으로 슬럼프가 길어지자 한국의 언론에서는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독일 언론에선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 자료로 확인 불가능

6. 상대방이 반칙을 하면 당신은 무어라 말할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건 규칙위반이다. 그러면 안된다'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그럼 그 선수에 대해 보복을 할 경우도 있냐는 질문에 '나는 신앙인이며 그런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 상세한 대화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주요 내용은 동일하다. [1]

7. 차범근의 경기가 녹화 방송되던 80년대 초의 월요일 밤은 술 마시는 사람들조차 귀가를 서둘렀다고 한다.

☞ 자료로 확인 불가능

8. 86년 멕시코월드컵에서 한국대표로 차범이 출전하자 상대팀에서는 그를 막으려고 기본이 2명, 많게는 3명이 달라붙었었다.

☞ 자료로 확인 불가능

## [인터넷 글 2]

▶차범근은 누구인가

▶77년 대통령배 축구대회(박스컵). 말레이시아 전 1:5로 뒤지던 상황.종료 5분 남겨놓고 4골의 소나기 골.

☞ 대통령배 축구대회는 76년이며, 1976년 9월 11일 말레이시아전에서 3골을 기록해 4:4로 비김. [8],[9]

▶79년 프랑크푸르트 입단 8월 당시 세계 최고 리그로 불리던 분데스리가 데뷔.데뷔전 상대는 도르트문트. 스타팅으로 75분까지 뽀. 어시스트 기록.최고권위 축구전문지 'KICKER' 선정..주간 베스트11.

☞ 당시 첫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맞지만 팀이 0:1로 패했기 때문에 어시스트는 기록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10]

▶세 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전. 헤딩으로 승리결정 골. KICKER 선정 이주일의 골.

☞ 세 번째 경기인 슈투트가르트전에서 52분에 1골 기록. 팀은 2:0으로 승리. [10]

▶네 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 전. 그라보스키 어시스트로 선취골.

☞ 네 번째 경기는 Eintracht Braunschweig와의 경기였고, 32분 1:1로 비기고 있던 중 1골을 기록했다. 이날 팀은 3:2로 승리하였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는 리그 9번째 경기였고 이 경기에서는 골을 기록하지 못하였다. [10]

▶다섯 번째 경기 최 강호 보루시아MG 전. 한가운데 돌파에 이어 찬 공, 왼쪽 포스트 맞고 골. 선취골. 세경기 연속 골. 이날 KICKER, 처음으로 차범이라는 단어 씀.

☞ 다섯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의 경기였고, 80분에 1골을 추가하여 팀의 3:0승리를 도왔으며, 이로써 3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게 된다. [10]

▶9월 강호 함부르크 전. 페차이의 어시스트를 받아 강슛. 그라보스키 센터링, 헤딩 슛. 30M 중거리 슛. 첫 해트트릭 기록.

11월 일본의 오데쿠라가 소속된 쾰른 전. 두 동양인의 대결로 관심 집중. 차범근 선취골, 결승골로 두골 기록. 오쿠데라 헛발질 7번. 차범 대승. 프랑크 푸르트 3:1로 승리.

☞ 79년 9월 22일 함부르크와의 경기에 출전하였지만 골은 기록하지 못하였다. 팀은 3:2로 승리하였고, 골은 Bruno Pezzey가 1골, Harald Karger가 2골을 넣었다. [11]

79년 11월 24일 쾰른전에서 26분 선취골, 79분 추가골을 기록하여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당시 오쿠데라 야시히코(Yasuhiko Okudera)라는 선수가 쾰른 소속으로 출전하였지만 헛발질을 몇 번 한 지는 알 수 없다.

▶일간스포츠 톱기사 이때부터 MBC 차범근 경기 녹화방송 시작. 매주 월요일 밤. 최고 시청률.

☞ 확인 불가능

▶12월 UEFA 컵 출전. 첫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를 맞아 차, 선취골을 넣었으나 1:1 무

승부..두번째 경기 AC밀란 전.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강슛. 포스트 맞고 튀어나왔으나, 골대 5초이상 흔들림. 특종 기사실림. 3:2로 프랑크 푸르트 승리.

☞

첫 번째 경기 : 스코틀랜드의 Aberdeen 이었고, 2-1로 승리

두 번째 경기 : 루마니아의 Dinamo (Bucharest) 이었고, 3-2로 승리

세 번째 경기 : 네덜란드의 Feyenoord(페예노르트) 이었고, 4-2로 승리

그러므로 79년에 레알 마드리드, AC밀란 등과 경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6]

골대를 강타하여 흔들렸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확인은 불가능하였다. (아쉽다)

▶80년 3월 UEFA 컵 결승전. 보루시아 MG와 1차전. 당시 20세의 나이로 '게르만의 혼'이라 불리던 마테우스(90년 월드컵 MVP),갈색 폭격기 '차붐' 전담마크 특명. 신문 톱기사.

☞ 확인 불가능

▶UEFA 컵 결승전. 보루시아 MG와 2차전. 역시 마테우스 차붐 전담 마크.마테우스 속수 무책. 차붐 대활약. 우측사이드 마테우스 여유롭게 제치고 어시스트. 1:0 프랑크푸르트 승리. 차붐, 이날의 선수. 원정팀 득점 우선권으로 프랑크푸르트 창단이후 첫 UEFA컵 우승.

☞ 동영상 확인 결과 어시스트 아님. '마테우스를 여유롭게 제치고 어시스트'하는 장면은 없음.[7] 하지만 UEFA 결승전에서 마테우스와 차범근이 맞붙은 것은 사실이며, 프랑크푸르트가 원정 다득점으로 인해 우승한 것도 사실.[6]

▶경기 후 마테우스 인터뷰

"나는 아직 어리다. 하지만 차범근은 현재 세계 최고 공격수다"

☞ 확인 불가능

▶79~80 시즌 득점 랭킹 7위 랭크. 세계 상승세 베스트 4 선정됨.세계축구 베스트 11 선정됨. 연봉 독일에서 세번째 액수. 협상 타결.독일 대표팀 감독 차붐 귀화 추진. 실패. 81시즌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겔스도프에게 육탄공격 받아 심한 부상. 프랑크푸르트 팬들 레버쿠젠까지 가서 겔스도프 살해 위협 소동. 경찰 출동.

☞ 확인 불가능

▶83년 레버쿠젠으로 트레이드. 프랑크푸르트 팬들 울음바다.85~86시즌 분데스리가 MVP 및 득점 4위.

86년 한국대표팀 선수로 멕시코 월드컵 출전

☞ 83년 레버쿠젠으로 이적하였고[3], 86년 월드컵 출전한 것도 맞지만[9] 85~86시즌 분데스리가 득점랭킹은 확인 불가능하였다. 참고로 86년 분데스리가 득점왕은 Stefan Kuntz (VfL Bochum)으로 22골을 기록하였다.[12] 그러므로 당시 17골을 기록했던 차범근이 4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88년 다시 UEFA컵 출동. 차붐 스페인 에스파뇰을 맞아 극적인 3:3 동점골 터뜨림.5만 관중 차붐! 환호. 승부차기로 레버쿠젠 역시 팀 창단 이래 처음으로 UEFA컵 우승.

☞

Final 1st Leg, Sarria Stadium, Barcelona, att 42000

RCD Espanol (1) 3 Bayer Leverkusen (0) 0

45' 1-0 E: Losada

49' 2-0 E: Soler

56' 3-0 E: Losada

RCD Espanol

N'Kono; Job, Miguel Angel, Gallert; Soler, Orejuela (Golobart 66), Urquiaga, Inaki; Valverde, Pichi Alonso (Lauridsen 69), Losada

Bayer Leverkusen

Vollborn; Rolff, De Kayser, A.Reinhardt, Hinterberger; Cha Bum-Kun (Gotz 18), Tita, Buncol, Falkenmayer (K.Reinhardt 75); Waas, Tauber

Final 2nd Leg, Ulrich Haberland Stadion, Leverkusen, att 22000

Bayer Leverkusen (0) 3 RCD Espanol (0) 0 aet

57' 1-0 BL: Tita

63' 2-0 BL: Gotz

81' 3-0 BL: Cha Bum-Kun

Leverkusen won 3-2 on penalties

Bayer Leverkusen

Vollborn; Rolff, Seckler, A.Reinhardt, K.Reinhardt; Schreier (Waas 46), Buncol, Falkenmayer; Cha Bum-Kun, Gotz, Tita (Tauber 62)

RCD Espanol

N'Kono; Miguel Angel, Golobart (Zuniga 73), Urquiaga; Job, Orejuela (Zubillaga 66), Inaka, Soler; Pichi Alonso, Losada

레버쿠젠은 1차 경기에서 에스파뇰에 0:3으로 졌으나 2차 경기에서 3:0 으로 승리해서 승부차기 끝에 UEFA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2차 경기에서 차범근은 후반 82분에 팀의 3번째 골이자 (전체 스코어로)동점골을 만들어 팀이 승부차기까지 가는데 큰 공헌을 했다. [5]

▶분데스리가 외국인 최다출장 최다골 기록 분데스리가 308경기 98골...차범근 선수가 세운 분데스리가 외국인 최다골 기록은 스위스 출신 사뮈엘 선수에 의해 지난 99년에 경신. (106골/218경기)

2007년 5월 30일 기준으로 차범근은 외국인 득점랭킹 5위에 랭크. 1위: Giovane Elber(133골), 2위: Chapuisat(106골), 3위: Ailton(105골), 4위: Claudio Pizarro(100골)

[8] 위 1위~4위까지의 선수들을 확인해 본 결과, 그 기록이 모두 99년 이후에 나온 것으로, 99년 이전까지는 차범근이 외국인 최다 골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 [인터넷 글 3]

▶"나는 차붐 선수를 존경한다. 난 어릴 때부터 차붐을 보고 자라왔다. 나도 그 선수처럼 되고 싶다." - 마이클 오웬 (뉴캐슬 Utd)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당시) "여기가 차붐의 나라입니까? 너무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나의 우상입니다." - 미카엘 발락 (첼시FC)

📖 '발락은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선수 중 한 명으로 차범근을 손꼽기도 했다.' [13]

차범근과 발락 포옹하는 사진. [14]

▶"차범근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건 분명하다. 그리고 나의 자만을 깨우쳐 줬다." - 로타르 마테우스 (前 독일국가대표,A매치 150경기출장)

▶"난 차붐을 낳은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그가 독일에 있었다면 어김없이 독일 대표팀에 넣고 싶다." - 프란츠 베켄바우어 (前 독일 국가대표,A매치 103경기출장)

▶"내가 그런 공격수랑 붙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다." - 파울로 말디니 (AC밀란)

▶"붐은 진정으로 축구를 할 줄 알고 즐길 줄 안다." - 펠레 (2004년 방한시)

▶"당신에게 사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는 제게 정말 큰 영광입니다." - 올리버 칸 (바이에른 뮌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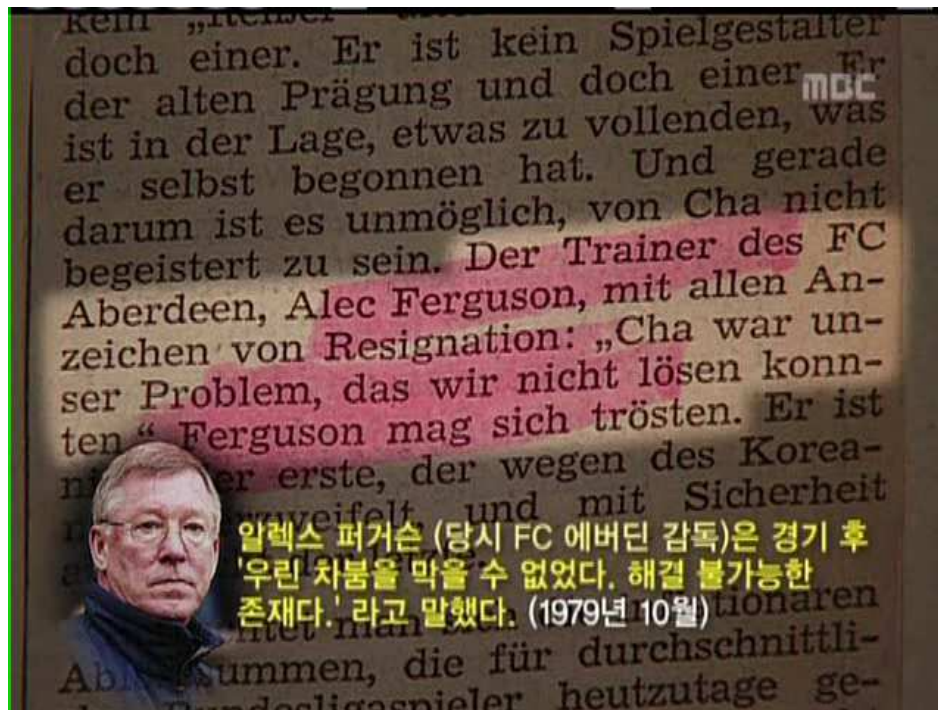
▶"차붐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웅이다." - 루이스 피구 (前 포르투갈 국가대표,A매치 127경기)

▶"내 자신은 어느정도 성공한 공격수로 평가받지만 차붐정도는 아니다." - 위르겐 클린스만 (前 독일국가대표,A매치 108경기출장)

▶"방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국의 발전과 우호증진이어야 한다. 하지만 난 차붐부터 만나고 싶다." - 슈뢰더 (독일총리)

▶"우리가 풀지 못했던 주요한 문제는 차붐이었다. 차붐을 막을 수 없었다. 해결 불가능한 존재였다." (79년 에버딘감독 당시 프랑크푸르트와의 UEFA컵 1라운드 경기 후) - 알렉스 퍼거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 웹에서 이런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다. 아마 MBC에서 방영된 차범근 특집영상인 <독일의 코리아너 차붐> 중에서 캡처한 영상으로 보인다.



어록이라 자료로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이 많았다. 그래서 위 내용 중 상당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자료를 통해서 차범근은 당시 분데스리가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세계적인 선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자료를 보고싶은 분들은 차범근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 둔 차붐보이님의 네이버 블로그를 방문해 보길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chaboomboy>

[Reference]

[1] 아!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 40년, 격동의 100대 드라마) 중앙일보 | 랜덤하우스중앙 | 2005.12.01 | 403p | ISBN : 8959861693

[2] [http://de.wikipedia.org/wiki/Bum-Kun\\_Cha](http://de.wikipedia.org/wiki/Bum-Kun_Cha)

[3] <http://www.fussballdaten.de/spieler/chabumkun/>

[4] <http://www.fussballdaten.de/spieler/gelsdorfjuergen/>

[5] <http://www.rsssf.com/ec/ec198788.html>

[6] <http://www.rsssf.com/ec/ec197980.html>

[7] <http://kr.youtube.com/watch?v=vs5v0yM5jEQ>

[8] [http://en.wikipedia.org/wiki/Cha\\_Bum-Kun](http://en.wikipedia.org/wiki/Cha_Bum-Kun)

[9] <http://www.rsssf.com/miscellaneous/cha-intl.html>

[10] <http://www.fussballdaten.de/spieler/chabumkun/1980/>

[11] <http://www.fussballdaten.de/bundesliga/1980/7/frankfurt-hamburg/>

[12] <http://www.dfb.de/index.php?id=380607>

[13]

<http://sports.chosun.com/news/ntype2.htm?ut=1&name=/news/sports/200812/20081203/8cc12002.htm>

[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1552171&>

[15] 독일사전 : <http://dict.tu-chemnitz.de/dings.cgi?lang=en;service=deen>